

북한 악단의 변화와 문화정책¹⁾

하승희(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목차

1. 서론
2. 소련모델의 차용 : 국가건설과 위기극복
3. 고전음악의 변용 : 후계체제공식화와 문명국건설
4. 세계적 추세 반영 : 지도자 대표악단
5. 결론

I. 서론

북한은 의도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추동하기 위해 음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음악을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북한 ‘악단’이 있다. 북한의 악단은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동원되는 가운데 각 정권 시기별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새로운 악단이 등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악단들 중에는 ‘본보기’가 되는 국보급악단이 있다. 이 악단들은 해당시기 필요에 의해 지도자가 직접 창립에 관여해 창립하게 된다. 예술선전대 및 지방예술단도 있지만 중앙예술단체, 그 중 메인이 되는 악단은 국보급악단이라고 불리는 악단들인 것이다.

북한 악단은 선전선동도구인 만큼 그 활용목적도 단순히 체제유지를 위한 것으로 귀결되어 악단의 창립과 활용 목적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창립된 악단들은 정치적 활용을 목적으로 해당시기 창립되었다고 보고, 악단들의 창립시점에 주목해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악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창립되는 가운데 어떠한 목적에 따라 창립하였는지, 그 목적과 악단의 형태 및 장르 등의 특징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글의 분석대상은 ‘북한의 주요악단’이다. 북한에서는 악단을 ‘음악연주를 목적으로 조직된 예술집단 또는 그 조직’²⁾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글의 분석대상인 ‘북한의 주요악단’이란, 북한의 개념에서 음악연주의 범위로 한정하여 ‘기악 또는 노래와 기악 연주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정의하고, 대표성을 갖는 악단 선정에 대해 악단 ‘국보급악단’이라 불리는 악단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³⁾ 이 악단을 바탕으로 북한 악단의 등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 악단의 변화 연구(1945~2018)’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2판)』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1510.
3) 이 악단 중 북한 내에서 권위와 대표성을 갖는 악단선정을 위해 무용이 포함된 예술단 및 협주단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국보급악단’이라 불리는 9개 악단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북한에서는 국가를 대표하거나 나라의 귀중한 것으로 되거나 가치 있는 것을 ‘국보’라 칭하는데, 지도자가 직접 창립에 관여하는 악단 중 중앙예술단체의 권위와 대표성을 가지는 악단을 ‘국보급예술단체’, ‘국보적예술단체’, ‘본보기예술단체’로 칭한다.

II. 소련모델의 차용 : 국가건설과 위기극복

1. 국립교향악단 : 국가건설 초기 정체성확립

해방 직후 북한은 민주조선건설시기로 명명하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과 함께 음악분야에서도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자립적으로 창립하고 활동하였다.⁴⁾ 당시 국립교향악단의 전신인 중앙교향악단은 함흥, 청진, 신의주, 원산 등 각 지방에 분산되어있는 음악가들을 평양에 집결시켜 교향악단 31명과 합창단 30명을 모아 조직하였다. 1965년 『조선음악』에는 1946년 7월 4일 당의 주요 간부들의 참석 하에 중앙교향악단의 발단식을 거행하였다고 기록되어있으나,⁵⁾ 김일성 저작집에는 1946년 8월 8일 창립공연에서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첫 곡으로 연주하며 창립을 알렸다고 밝혔다.⁶⁾

1946년 8월 8일 김일성은 중앙교향악단의 창립공연에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예술의 높이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발전정도를 짚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되는것입니다. 민족문화건설은 새민주조국건설의 중요한 전선이며 민족문화예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앞에 나선 중대한 과업입니다.”⁷⁾라는 언급을 통해 예술이 나라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건설 초기 국립교향악단의 창립은 국가정체성 확립의 목적으로 창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립교향악단(당시 중앙교향악단)은 국가초기 교향악단이라는 형식을 가장 먼저 두어 문화국가의 권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교향악은 음악형식 중 음악적 표현방법을 집대성한 것으로,⁸⁾ 모든 음악의 권위를 대표한다. 각 국가에는 자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교향악단의 설립은 완전한 형태를 지닌 국가가 문화국가로서의 권위를 획득하고 국가정체성 확립과 동시에 독자적 음악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건설 시 사회주의국가를 기초로 한 북한은 당시 소련의 국가성립 과정에서 보여준 1936년 소련국립교향악단(현 러시아국립교향악단) 설립과도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⁹⁾ 국립교향악단은 북한에서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북한의 국가인《애국가》를 처음으로 연주한 예술단체라는 점에서도 교향악단을 통해 국가건설 초기 국가기반 확립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건설시기 국가정체성 강화를 통해 국가기반을 확립하고 국가건설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민대상의 선전선동과 당 정책을 생활 속에서 추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김일성, “예술단체들을 조직할데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장과 한 담화(1945년 10월 22일),” 『김일성전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7.

5) “국립 극장들이 걸어 온 길을 더듬어: 국립 교향악단,” 『조선음악』, 10호(1965), p. 38.

6) 김일성, “음악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중앙교향악단창립공연을 보고 예술인들앞에서 한 연설(1946년 8월 8일),” 『김일성저작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335-336.

7) 위의 책, pp. 335-337.

8) 박용구, “교향악운동의 기본형태,” 『조선일보』 1946년 1월 28일; 조윤영, “왜 식민지조선 음악가들은 관현악단을 만들고자 했는가: 경성방송(JODK) 관현악단의 출현과 그 의의,” 『이화음악논집』, 21권 2호(2017), p. 84. 재인용.

9) 김원구, 『음악의 역사』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6).

2. 공훈국가합창단 : 위기극복과 대내결속 강화

198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에 따라 북한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며 체제유지에 주력해야 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는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었고 식량위기의 장기화는 ‘고난의 행군’을 불러왔다.¹⁰⁾ 이때 김정일은 1999년 6월 16일 공동사설을 통해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명명하였다.¹¹⁾

이때 남성중심의 군 소속 예술단체인 공훈국가합창단이 창립하였다. 이 악단은 1947년 2월 22일 ‘조선인민군협주단’ 창단 시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1992년 ‘공훈합창단’ 칭호를 수여받고,¹²⁾ 1995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합창곡목을 기본으로 하는 독자적 예술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1995년 12월 24일 첫 합창음악연주회 이후 1997년 7월 27일 전승 44돌 기념 공연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진행하였고,¹³⁾ 1997년 가을, 공훈합창단은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분리되어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독자적 공연활동을 진행하였다.¹⁴⁾ 이때부터 공훈합창단은 독자적인 예술단체로 창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북한은 조선인민군 소속 대규모 남성합창단의 위엄과 강고함을 활용하고자 집단주의에 기초한 합창을 장려하였다. 김정일은 “나는 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속에 잠겨 있을 때 신심과 락관을 주는 혁명의 노래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인민군협주단에 있던 합창단을 독자적인 정예화된 예술단체로 새롭게 꾸리고 전문적으로 합창만을 창작형상하도록 하였다”¹⁶⁾고 공훈국가합창단의 창립배경을 설명하였다. 김정일은 당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 대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물론 오늘도 나에게 커다란 힘을 주고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이 경무기라면 인민군공훈합창단은 중무기”¹⁷⁾라고 밝혔다. 이것을 통해 경음악단과 군대합창단의 활용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주의 기초한 합창형식을 바탕으로 군의 위엄과 대규모 남성합창단이라는 강고한 이미지는 고난의 행군과 같은 대내정세의 어려운 상황에서 대내결집과 국면전환을 시도하기에 효과적인 형식이었던 것이다.

공훈국가합창단은 1947년 창립한 조선인민군협주단 하부에 속해 있던 합창단이었으나, 고난의 행군시기 기존 악단에서 독립하여 새롭게 창립하였다. 북한은 대내정세가 어려운 시기에 공훈국가합창단을 독립시켜 고난 극복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적극 장려하며 국가

10) 와다 하루끼, 『북한현대사』 (파주: 창비, 2014), p. 246-247.

11)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12) “세계적인 공훈합창단.” 『조선예술』, 12호(2001), p. 8.

13) 송명남, “<모란봉악단>을 통해 보는 조선의 문화정책과 인민생활.” 『朝鮮大學校學報』, 25권(2015), p. 153.

14) 김정일은 당시 공훈합창단이 ‘최고사령관’을 따라 전선과 후방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와 식당차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정태봉,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을 선군정치의 나팔수로 키워 주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학)』, 48권 1호(2002), p. 14.

15) 이후 공훈합창단은 2000년 6월 27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2004년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으로 격상되었고, 2008년부터는 ‘공훈국가합창단’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송명남, “<모란봉악단>을 통해 보는 조선의 문화정책과 인민생활.” 『朝鮮大學校學報』, 25권(2015), p. 154.

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창작공연활동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조선문학예술년감(2001)』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p. 79.

1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을 높이 평가해 주시었다.” 『조선문학예술년감(2001)』,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p. 71.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분위기로 유도하였다. 음악의 성악 연주형태에서 합창형식은 전체 주의의 산물로, 공훈국가합창단은 실제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1928년 10월 12일 창립한 러시아의 붉은군대합창단(The Red Army Choir)이라 불리는 알렉산드로프 앙상블(Ансамбль Александрова)¹⁸⁾과 유사한 부분을 보인다. 이 악단은 대규모 합창단과 관현악단, 무용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련 전통악기인 발랄라이카와 바얀 등의 악기를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¹⁹⁾ 공훈국가합창단의 기악은 오케스트라 형태로, 알렉산드로프 앙상블과 같이 대규모 군대합창단과 관현악단 구성, 북한 전통악기인 어은금을 배치하며 악단성격과 악기편성, 레퍼토리와 콘셉트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소련모델을 차용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공훈국가합창단은 군대의 대규모 남성합창을 통해 웅장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합창이 갖는 단결력과 공동체적 성격을 통해 정치변동 및 정치사회적 환경변화로 위기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대중의 결집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Ⅲ. 고전음악의 변용 : 후계체제 공식화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1. 삼지연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 : 후계체제 공식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과 함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불러왔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생한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은 후계체제 준비를 시급하게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새로운 후계자 선출과 함께 후계자 이미지 구축을 위한 새로운 악단을 창립하고자 하였다. 당시 전자 밴드들의 전자음악은 세계적으로도 쇠퇴한지 오래였다. 북한은 이를 인식하고 기악음악과 서양음악 연주자들의 국제무대 활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클래식음악을 메인악단으로 등장시켰다.

새로운 악단인 삼지연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은 고전음악의 형태 중 하나인 오케스트라 형태에 클래식을 변용하여 세미클래식을 추구하였다. 먼저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이하 삼지연악단)²⁰⁾은 2009년 1월 16일 김정일이 직접 창립한 악단으로, 창립에 배경에 대해 “1970년대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만수대예술단의 <백설공주>들이 새 세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체예술의 새로운 꽃으로 피어난 삼지연악단

18) 이 연주단은 북한에서 몇 차례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제1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불렀으며, 대표곡인 <정의의 싸움>, <갈린까>, <까츄샤>, <모스크바교외의 밤> 등 이전 소련시기의 노래와 민요, 무용작품 등을 공연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8일~17일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축전무대에 올려피진 불멸의 혁명송가: 로씨야 알렉산드로브명칭군대합주단,” 『음악세계』, 25호(1998), p. 32-3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예술년감 2005』(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 p. 546.

19) 알렉산드로프 앙상블(Ансамбль Александрова) 공식홈페이지: <http://alexandrov-fond.ru/ensemble/>

20) 삼지연악단의 악단명칭인 ‘삼지연’은 양강도 삼지연군 삼지연읍에 있는 항일전적지로, 세 개의 늪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삼지연이라고 불린다. <<http://www.cybernk.net>>

이다”²¹⁾라고 언급하였다. 이때 ‘만수대예술단의 <백설공주>’는 공훈녀성기악중주조의 별칭인 점에서 만수대예술단 공훈녀성기악중주조가 삼지연악단으로 개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로동신문』은 “이름만 들어도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에 아름답게 펼쳐진 삼지연못가의 정가로운 화폭이 눈에 삼삼 안겨오고 울려나오는 음악 또한 참신하면서도 특색있어 황홀한 예술의 신비경을 펼치는 삼지연악단”²²⁾이라고 악단을 소개하며 악단명칭에서 ‘백두산기슭’의 ‘삼지연못가’를 언급한 점에서 항일전적지를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은하수관현악단은 창립에 앞서 공훈국가합창단, 국립교향악단, 만수대예술단과 합동공연 형식으로 진행한 2009년 1월 26일 설 명절 경축음악회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로동신문에서는 은하수관현악단에 대해 “우리나라의 민족음악에 현대적화성과 리듬, 빠른 속도를 조화롭게 배합하여 새 세기 인간들의 요구와 취미에 맞는 리상적인 음악을 창조해내고 있다. 또한 현대의 지향과 발전추세에 완전히 부합되면서도 주체적인 문화적기초, 자기의 민족적 바탕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²³⁾이라고 밝혔다. 이 악단의 명칭인 ‘은하수’는 북한에서 김정은을 의미하는 별칭이라고 전해진다. 다음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실린 후계자문제 관련 글이다.

“혁명위업계승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문제이며 수령의 후계자를 올바르게 선정하고 추대하는 것은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중략)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8(2009)년 7월말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김정은동지는 군사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완전히 정통하고있다고, 한마디로 말하여 김정은동지는 문무를 겸비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중략)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되어 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랐으며 원수님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 것을 한결같이 념원하였다...”²⁴⁾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2009년은 실제 북한에서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후계자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2009년 등장한 은하수관현악단은 김정은의 후계권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된 악단으로 볼 수 있다.

삼지연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은 기본 오케스트라형태로 편성되었지만, 은하수관현악단의 경우 ‘팝소케스트라’의 새로운 연주형태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구성을 보여준다. 기본 오케스트라편성에 북한의 민족악기가 부분적으로 편성된 배합관현악 편성이다. 또한 전자악기와 함께 색소폰 6중주(리철훈, 송용국, 김형일, 황승철, 리용, 김성국)를 포함시켜 부분적으로 빅밴드²⁵⁾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연주에서는 실제 ‘글렌밀러 오케스트라 (Glenn Miller Orchestra)’라는 가장 대표적인 빅밴드의 음악과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은하수관현악단의 색소폰6중주 곡 중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의 도입부

21)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주체예술의 화원을 꽃피워온 예술집단 만수대예술단조직 40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2009년 9월 27일.

22) “주체음악예술의 새로운 발전면모를 보여준 인상깊은 공연무대: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공연을 보고,” 『로동신문』, 2009년 5월 17일.

23)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창조기풍,” 『로동신문』, 2013년 1월 15일.

24) 오룡성,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한 조선로동당”,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2016,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62권 4호, 31-33.

25) 빅 밴드란 “재즈나 댄스음악을 연주하는 대편성의 악단”으로 브라스(트럼펫, 트롬본), 리드(클라리넷, 색소폰), 리듬(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스)의 3개 섹션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체는 15~20명 정도로 구성된다. 참조: 삼호뮤직편집부, 『클래식음악용어사전』(서울: 삼호뮤직, 2001), p. 190.

멜로디는 글렌밀러의 ‘인 더 무드(In the Mood)’의 도입부 주선율을 샘플링하여 활용하였다.

<사진 1> 글렌밀러의 ‘인 더 무드(In the Mood)’ 도입부 주선율



출처 : <http://www.akbobada.com/pdf.html?partID=34280&bought=0>

삼지연악단은 프랑스 경음악단 ‘폴모리아 그랜드 오케스트라(Paul Mauriat Grand Orchestra)’²⁶⁾를 모티브로 음악과 콘셉트를 구성했다고 할 만큼 많이 닮아있다. 이는 1990년대 폴모리아의 일본활동으로 일본 내 유럽의 경음악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음악경향이 북한음악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지연악단의 서양악기 중심 관현악형태와 클래식 경음악 레퍼토리 구성은 1990년대 후반 폴모리아그랜드오케스트라의 세계투어의 대성공, 특히 일본내한공연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과 연관이 있다. 당시 폴모리아 그랜드오케스트라는 일본내한공연을 통해 다양한 클래식 경음악 레퍼토리가 대중적 인기를 끌었고, 이러한 기악음악의 추세를 인식하고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⁷⁾

2. 삼지연관현악단 :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및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언급하였다.²⁸⁾ 이후 몇 차례 남북협의를 끝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의 특별공연이 성사되었다.²⁹⁾ 삼지연관현악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삼지연관현악단 특별 공연을 진행한 악단으로, 북측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북한은 이 악단에 대해 2018년 2월 13일자 『로동신문』에서 김정은과 삼지연관현악단 단원의 기념사진을 공개하며 처음으로 언급하였다.³⁰⁾

26) 폴모리아 그랜드 오케스트라는 1965년 결성한 악단으로, 관현악단에 전자악기가 더해지며 클래식, 팝, 영화주제가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한다. 폴모리아 그랜드 오케스트라는 1994년 필립스 레이블에서 일본 ‘포니 케년’으로 이적하고 1996년 도쿄에서 30주년 기념콘서트, 1998년 오사카에서 공연을 하는 등 일본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27) 셀르지우·에라이크, 山崎俊明 訳, 『ポール・モーリア』(東京: 南部全司, 2008), p. 238-286.

28) “신년사,”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29) 이 행사를 위해 몇 차례 실무접촉 등의 남북협회가 진행되었다. 1월 15일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평창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 강릉·서울 공연을 합의과정이 있었다. 여기에는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 단장,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행정부단장,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이 참여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 강릉, 서울 공연 합의,” 『통일부(보도자료)』, 2018년 1월 15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370&category=&pageIdx=12>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특별공연 예술단으로 확정될 당시까지만 해도 삼지연관현악단은 북한 내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당시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악단들이 악단 구성원으로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연합공연 팀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삼지연관현악단은 2018년 10월 10일 당 창건 73돌을 맞아 인민군교예단이 소속되었던 모란봉교예극장³¹⁾을 새롭게 개건하며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라는 전속극장이 마련되었다. 이후 주요 대내 행사 및 대외 공연을 진행하며 새로운 본보기 악단으로 부상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에서는 무엇보다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8년 10월 10일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개관식 개관사에서 박광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구현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 본보기극장”, “최상의 음향조건을 갖춘 예술극장”, “우리 인민과 예술인들이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며 고상하고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해나갈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지연관현악단에 대해 “삼지연관현악단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예술활동의 훌륭한 거점을 마련하여준 당의 의도와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높은 실력과 기량으로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가며 우리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현송월은 결의토론에서 “세상에는 나라마다 자기의 건축미와 문명의 극치를 자랑하는 극장들이 있다고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이 극장처럼 우아하고 황홀한 극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극장이라고 강조하였다.³²⁾

북한은 이 극장에 대해 ‘생울림극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생울림극장 설명 중 ‘확성장치를 전혀 쓰지 않는 1,200여석의 원형생음연주홀’이라고 한 점에서, ‘생울림극장’은 극장의 음향환경에서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 없이 가공되지 않는 순수한 공간의 음향시설을 갖춘 극장, 오케스트라나 연주악기의 순수 사운드를 잘 만들어내는 공간 즉, 어쿠스틱 극장과 같은 극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민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조건 마련위한 본보기 극장’으로, ‘생울림극장’의 특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설립으로 문명화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하여 세계적수준의 관현악단 전용 극장을 설립하고자 하겠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의 당창건 개관을 기념하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에 대형피아노를 선물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삼지연관현악단은 조직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차례의 공연을 훌륭히 진행하여 내외에 명성을 떨쳐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정열적이고 세련된 예술창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며 우리 국가를 위하여 전심다해 복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때 김정은은 북한을 ‘우리 국가’로 지칭하였다. 북한이 자국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조국’, ‘우리 당’, ‘우리 나라’로 지칭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국가’로 표현한 것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목표와 일치한다.

3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측지역에서 축하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돌아온 삼지연관현악단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로동신문』, 2018년 2월 13일.

31) 1960년대 건축된 모란봉교예극장은 ‘기념비적건축물’로 불리며, 인민군교예단의 전속 극장으로 활용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8년 10월 11일.

32)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문화예술전당: 당의 은정속에 우리 나라 극장의 본보기로 새롭게 개건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개관식 진행.” 『로동신문』, 2018년 10월 11일.

IV. 세계적 추세 반영 : 지도자 대표악단

1. 왕재산경음악단과 보천보전자악단 : 김정일 대표악단

김정일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되며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였다. 이때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을 대거 선출하며 김일성체제를 옹호해온 항일 빨치산 출신을 계승하고자 했다. 이들을 기반으로 김정일은 새로운 사회·정치적 배경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³³⁾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정일은 새로운 권력을 구축하고 후계자로서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음악예술부문에서 자신을 대표할 새로운 악단을 구상하여 전자음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왕재산경음악단은 1983년 7월 22일 ‘우리 식의 경음악과 현대무용의 발전’³⁴⁾을 목적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하는 현실과 더욱 높아 가는 우리 인민의 미학적정서적요구에 맞게 경음악과 무용을 더욱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³⁵⁾라는 창립배경에 따라 창립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발전하는 현실’과 ‘우리 인민의 미학적정서적요구’가 ‘현대적’인 것을 뜻하며, 왕재산경음악단은 ‘현대적’인 것을 구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왕재산경음악단의 형태인 경음악단³⁶⁾은 북한에서 처음 창립한 형식으로 ‘대중적인 악기’와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가요나 민요들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음악창작에서 대중성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왕재산’이라는 악단명칭은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리에 있는 산 이름으로, 1933년 3월 11일 항일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시키려는 전략을 제시한 북한의 주요 혁명사적지를 가리킨다.³⁷⁾ 김정일은 새로운 후계권력의 상징을 당시 세계적 추세였던 전자음악을 도입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자 하였다. 이때 악단의 명칭에 항일혁명전통을 계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왕재산’이라고 명명하며 항일혁명세력의 공로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김정일은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항일빨치산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핵심세력 가운데 자신의 측근들로 세력을 장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왕재산경음악단의 명칭으로 항일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은 새로운 음악 도입에 보수적인 노장세력들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왕재산경음악단은 1983년에 창립되었음에도 공식 활동이 없었고 공식 매체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김정일은 1985년 당시 문화예술부문에서 경음악을 발전시키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인민의 요구와 지향, 연주자 선발 문제, 민족성을 바탕으로 현대성 구현을 강조한 ‘경음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³⁸⁾을 내놓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왕재산경음악단이

33)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창립과 핵심인재양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18권 1호(2014), pp. 115-136.

34)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510.

35) 위의 책, p. 510.

36) 『조선말대사전』에서 경음악이란 “대중적인 악기들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악단이 연주하는 간결한 형식의 가볍고 경쾌하며 락천적인 음악. 보통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가요나 민요들을 소재로 하여 편곡연주된다.”고 정의하였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98.

37)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9』, p. 511.

창립한 당시 악단을 공식적으로 선보일 만큼 경음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악단은 1989년까지 준비과정을 거치며 전자음악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연습 및 훈련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89년부터 왕재산경음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로동신문』은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맞아 주최국 프로그램으로 왕재산경음악단 종합공연이 28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다.³⁹⁾ 이를 계기로 왕재산경음악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왕재산경음악단을 통해 민족적 특성과 현대적 미감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인민들의 정서생활을 반영하여 생활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창작을 지시하였는데,⁴⁰⁾ 이것은 이전까지 혁명성 강조로 일관된 혁명가요의 과잉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대중적인 곡이 부재했던 것에서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9년 당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최로 인민들의 외부문화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인민들의 변화된 정서와 문화수준을 반영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천보전자악단⁴¹⁾은 창립배경에서 김정일이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우리 나라 음악발전 실태”를 인식하고 인민감정과 정서에 맞는 새롭고 현대적인 ‘우리 식의 전자음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 6월 4일 직접 창립하였다고 밝혔다.⁴²⁾ 당시 김정일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항일 빨치산세력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정치적 배경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⁴³⁾ 이때 후계자로서의 업적과 함께 자신만의 새로운 권력구축 및 자신을 대표할 새로운 악단을 구상하였다. 하지만 당시 김정일은 세력을 장악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노장청 대항 흐름은 외국음악요소에 대한 거부감으로 새로운 음악 도입에 대해 힘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노장세력들을 의식한 김정일은 전자음악 도입과 새로운 경음악단 창립을 어필하기 위해 악단 명칭에 항일전적지 이름인 ‘보천보’를 붙여 전통성을 계승하고자 하였고,⁴⁴⁾ 이를 통해 혁명세력의 공로를 높이고 혁명전통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세계적 음악추세에 따라 전자악기라는 새로운 음악형식을 도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김정일의 후계구축 과정의 일환이자 노장세력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은 왕재산경음악단보다 뒤늦게 창립하였지만, 왕재산경음악단에서 시범적 성격으로 선보였던 전자음악을 전면에 내세우며 활동 양상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띤다. 두 악단은 김정일의 전속악단으로 활동하며 김정일 시기 주체문화예술의 선두에서 북한의 새로운 음악스타일을 이끌었다. 다음은 김정일이 음악예술부분창작가 및 예술인들과 한 담화 내용이다.

38)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음악년감 1986』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87), pp. 56-58.

39) “다채로운 예술공연 진행,” 『로동신문』, 1989년 6월 30일.

40) 김정일은 “오늘 우리 인민들은 식의주에 대한 걱정이 없고 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서생활을 반영한 여러 가지 노래를 더 많이 요구한다. (중략) 처녀들에 대한 노래를 비롯하여 녀성들에 대한 노래, 어린이들에 대한 노래,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여 부를 노래, 환갑을 축하하는 노래 등 근로자들의 다양한 생활에서 부를 노래를 창작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음악년감 1990』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1), p. 15.

41) 보천보전자악단은 창립 초기 명칭은 ‘보천보전자악단’으로 알려졌지만, 1991년 일본방문공연 시 ‘보천보경음악단’으로 보도되었다. 이후 1992년부터 다시 ‘보천보전자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다.

42) “조선식전자음악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조선예술』, 8호(2004), p. 28.

43)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창립과 핵심인재양성에 관한 연구,” pp. 115-136.

44) 북한 양강도 보천군 보천읍에 위치한 보천보는 1937년 6월 4일 항일 빨치산 부대가 주력한 보천보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 p. 1424.

“연주 수단과 형식에서 세계적발전추세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여 음악발전의 세계적추세를 무시하여서는 안됩니다.(중략) 전자악단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전자공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전자기술을 리용한 여러 가지 악기가 수많이 나오고있으며 그것을 전문적으로 리용하는 전자악단도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중략) 사실 전자악기는 최신과학기술의 산물로서 색깔과 음향, 리듬을 연주가의 요구대로 조절하여 연주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악기보다 형상을 더 색깔있고 폭넓게 할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온지 얼마 오래지 않은 전자악기와 전자음악이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있는 것은 전자악기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자악기나 전자음악을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⁴⁵⁾

당시 전자음악은 세계적인 전자공업 발전 추세에 따라 대중음악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였고, 김정일은 전자악기의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세계적 추세인 전자음악을 인식하고 연주수단과 형식에서 이를 수용하고자 했으며, 자신의 본격적인 후계 구축 과정에서 새로운 후계권력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문화예술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로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모란봉전자악단과 청봉악단 : 김정은 대표 악단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⁴⁶⁾ 급속도로 진행된 권력이양과정을 통해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로 자리 잡았다.⁴⁷⁾ 김정은은 모란봉악단을 직접 창립하여 자신의 정권 출범을 알렸다.⁴⁸⁾ 이때 악단명칭으로 김정일이 생전에 좋아했던 ‘모란봉’을 사용하며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하였음을 강조하였다.⁴⁹⁾ 이에 모란봉악단은 새로운 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과 동시에, 이전시기 정통성 확보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일 사후 새로운 권력인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상징적 차원에서 대표악단을 창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란봉전자악단⁵⁰⁾은 현악 전자악기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악단으로 6명의 가수와 11명의 연주자(전자현악4중주, 신시사이저(2), 색소폰, 피아노, 드럼, 일렉기타(2)) 총 1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란봉전자악단은 과거 보천보전자악단과 같이 전자악기를 기본으로 하지만,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점과 전자현악 4중주(전자바이올린, 전자비올라, 전자첼로)를 중심으로 연주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다르다. 악기편성은 금관악기와 민속 악기 없이 전자악기 중심에 피아노 외 타악기가 추가편성 되었다.⁵¹⁾ 이때 전자현악 4중주가 성악조의

45)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음악예술부문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0년 12월 8일),” 『김정일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40-470.

4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일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탐,” 『로동신문』, 2011년 12월 20일.

47)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로동신문』, 2012년 4월 14일.

4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7월 7일.

49) 위의 신문, 2013년 1월 1일.

50) 모란봉전자악단의 명칭은 창립 당시 ‘모란봉악단’이었으나, 2018년 11월 4일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의 방문환영 예술공연때부터 ‘모란봉전자악단’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였다.

뒷편 중앙 또는 단을 세워 별도로 배치하는 등 모란봉전자악단의 핵심이 된다.

모란봉전자악단의 전자현악4중주는 2000년대 인기를 끌었던 영국 여성 4인조 전자현악 그룹 ‘본드(Bond)’가 모델이라 할 만큼 콘셉트와 음악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드’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4인조로 구성되었으며, 강한비트와 속주가 특징이다. 모란봉악단은 경음악을 연주할 때 악장 선우향희(제1전자바이올린)를 필두로 전자현악 4중주가 중심이 된다. 의상은 기존 경음악단 연주자들이 한복이나 긴 드레스 또는 원피스, 자켓 등을 착용한 것과 달리 민소매와 미니스커트를 착용하였다. 모란봉악단은 ‘본드’의 연주형태와 외형적 콘셉트뿐만 아니라 음악적 색채까지 비슷하게 연출하고자 하였다. 모란봉악단이 2012년 ‘인공지구위성 성과적 발사를 축하하는 모란봉악단공연’에서 연주한 경음악 ‘단숨에’는 모란봉악단의 대표곡이다. 이 곡의 도입선율은 ‘본드’의 2001년 데뷔앨범 「Born」에 수록된 곡 ‘Viva’의 도입부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악보는 본드의 ‘Viva’ 도입부 선율이다. 본드는 도입부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1악장을 샘플링(Sampling)⁵²⁾으로 활용했는데, 이 부분을 모란봉악단의 ‘단숨에’ 도입부에서 똑같이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2> 본드(Bond)의 <Viva> 도입부 선율



출처: 악보바다 <http://www.akbobada.com/pdf1.html>

북한 잡지 「조선예술」에서는 전자현악4중주에 대해 ‘고전음악에 이용되던 현악4중주의 양상불적 특성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전자악기와 결합시킨 것이 우리 식의 독특한 전자음악’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악4중주는 제 1, 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각 악기들의 지위와 역할이 있으며, 각 성부가 합쳐진 양상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성부를 책임적으로 끌고 나가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악기의 역할이 주는 의미에 따라 현악 4중주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³⁾ 모란봉악단의 악기편성에 일반적인 전자악단과는 달리 전자현악기를 기본으로 구성한 점 또한 악기편성에 숨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현악기는 이펙터(effecter)등의 전자적 장치로 음량을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편성으로 대편성관현악의 방대한 사운드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51) “모란봉악단의 개성적이고 특색있는 공연형식,” 『조선예술』, 7호(2015), p. 66.

52) 샘플링(Sampling)은 기존의 곡을 샘플로 어떤 특정 부분을 따서 멜로디 음원으로 새롭게 사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레코딩하는 작업을 말한다. 박선민, 『대중가요 리메이크와 복고』(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pp. 1-126.

53) “현악4중주의 안상불적특성,” 『조선예술』, 2호(2014), pp. 49-50.

는 적은규모로 큰 효과를 내는 일당백의 투쟁정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모란봉전자악단의 레퍼토리에서 댄스곡을 의미하는 ‘가무련곡’에서는 한국의 걸 그룹과 같이 대형을 이루어 안무를 구사하는데, 이는 김정일 시기 대표악단인 보천보전자악단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과 비교했을 때 과거 솔로가수 중심에서 걸 그룹형태로 유행이 변화한 것과 같이, 북한이 한국의 대중음악 흐름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⁴⁾ 또한 이 악단은 걸 그룹 소녀시대의 의상콘셉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2009년 6월 29일발매된 소녀시대의 2집 미니앨범 타이틀곡 ‘소원을 말해봐’의 콘셉트 의상은 하얀색 군복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모란봉악단 또한 기본 하얀색 군복을 의상으로 활용하였다. 안무에서도 모란봉전자악단은 소녀시대와 같이 대형을 이루어 똑같은 팔, 다리 동작으로 일체감을 주는 안무를 구사하며 한국 걸 그룹을 연상케 했다. 그동안 북한악단의 안무는 개별 가수가 노래의 가사에 따라 리듬을 타면서 간단한 몸짓, 손짓을 하거나 중창가수들이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확한 군무를 통해 통일성을 느끼게 하였고, 5명이상의 인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형을 구성한 다는 점에서 변화한 점을 보였다.

<사진 3> (당시)모란봉악단 공연장면(2015)



위 공연장면은 모란봉전자악단의 ‘가무련곡’ 공연 중 한 장면이다. 주로 상·하체의 통일된 움직임과 대형변화를 활용하였다. V자 대형이나 팔 동작을 이용해 일체감을 주는 통일된 안무를 구사였고, 왼쪽 다리를 축으로 하여 오른쪽 다리로 원을 그리며 되돌아오는 하체 안무는 소녀시대의 안무를 연상케 하였다. 걸 그룹 내에는 춤 실력이 특출한 멤버가 필수적으로 존재하는데, 북한의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에도 가무련곡에서 춤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멤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모란봉전자악단이 한국 걸 그룹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에 따라 북한에도 한류의 영향이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란봉전자악단은 젊은 여성 가수들로 구성된 그룹이라는 점, 통일된 안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한국 걸 그룹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모란봉악단의 경우에도 가창력이 뛰어난 멤버가 중앙에 위치하며 고음과 창법에 기교를 활용하는 등 메인보컬이라 할 수 있는 멤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 걸 그룹은 멤버 각자의 포지션이 뚜렷한 반면, 모란봉악단은 메인멤버 중심이라기보다 구성원 전체가 제창 또는 성부를 나누어 합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후 2015년 7월 김정일의 지시로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이 창립하였다. 청봉악단은 모란봉악단의 등장에 이어 양상블과 금관악기위주의 경음악단으로, ‘우리 식의 경음악단,’ ‘우리 당의 또 다른 친솔악단’이라고 밝힌 점에서⁵⁵⁾ 모란봉악단과 함께 한 축을 이루는 중

54) 1990년대부터 한국 대중음악계는 그룹형태의 가수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부터 그 비중이 점점 높아졌다. 이후 2000년대 중후반 걸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솔로가수 중심에서 걸 그룹형 아이돌 가수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충상, “한국 인기 대중음악의 시대별 특성 분석: 1960년대 ~2000년대 인기 가요 및 가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p. 59.

55)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시대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해나갈 또

요한 악단으로 볼 수 있다. 청봉악단은 왕재산예술단 소속으로, 왕재산예술단⁵⁶⁾의 연주자와 모란봉중창조의 핵심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다.⁵⁷⁾ 악단 명칭인 ‘청봉’은 백두산 남쪽에 있는 봉우리로, 구호나무가 발견된 혁명전적지를 가리키기도 한다.⁵⁸⁾

청봉악단의 연주형태는 경음악으로, 기악조에는 전자악기, 현악기, 금관악기, 퍼커션 등이 편성되어있다. 가수는 여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창형식을 통해 화음을 중시하고 조화를 강조한다. 또한 모란봉악단과 같이 현악 4중주가 기악의 중심을 맡고 있는데 전자악기 대신 클래식 악기를 사용하며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드럼과 금관악기, 현악기에는 남성연주자가 포함되어있어 전원 여성에 전자 현악기 중심인 모란봉악단과는 음악과 구성의 콘셉트에서 차별화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청봉악단의 의상은 2016년에 진행한 당 제7차대회경축 합동공연 <영원히 우리 당 따라>를 기점으로 창립초기와 구분된다. 여성은 검정색 또는 흰색 이브닝드레스, 남성은 검정색 턱시도를 착용하여 클래식 악단의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하지만 2016년에 진행한 당 제7차대회경축 합동공연 <영원히 우리 당 따라>에서는 청봉악단의 의상과 콘셉트가 변화하면서 악단의 개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래식함을 부각하고 가수의 경우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른 의상을 착용했던 창립초기와는 달리, 당 제7차대회경축 합동공연부터는 가수와 연주자 모두 청록색 단복을 착용한 것이다. 안무 또한 창립 초기 제 자리에서 리듬을 타거나 팔 동작 위주로 진행되는 등 대체로 정적이었던 반면, 악단 개편 이후 안무에서도 일체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군무형태, 모란봉악단의 걸 그룹 식 안무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로동신문』은 청봉악단의 창립배경에 대해 “비상히 높아진 우리 인민의 지향과 문화정서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천만의 심장을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더욱 불타게 하고 예술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불사르는 척후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새로운 경음악단의 조직을 선포”⁵⁹⁾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문화예술과 인민의 취향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악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의 전략적 의도를 수행하는데서 나팔수”라고 명명함에 따라, 새로운 정권의 창립과 함께 인민의 변화된 취향에 맞춘 악단 창립으로 새 정권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 청봉악단이 조직되었다.” 『로동신문』, 2015년 7월 28일.

56) 왕재산예술단은 1983년 결성된 왕재산경음악단이 2011년(추정) 무용중심의 왕재산예술단으로 재편된 단체이다.

5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시대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해나갈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 청봉악단이 조직되었다.” 『로동신문』, 2015년 7월 28일.

58) 청봉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 이명수노동자지구에 있는 청봉숙영지고, 이곳은 1939년 5월 18일 김일성이 부대를 끌고 무산지구 진출 시 숙영한 곳으로 알려진 북한의 혁명전적지이다.
<<http://www.cybernk.net/>>

5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시대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해나갈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 청봉악단이 조직되었다.” 『로동신문』, 2015년 7월 28일.

V. 결론

이 글은 북한 악단과 문화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악단의 창립시점에 주목해 각 악단들의 창립목적과 형태 및 장르 특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북한은 악단 창립 시 다양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단의 형식과 장르를 고려하여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북한 악단의 활용 구분

활용	소련 모델		고전음악 변용(대중성)		세계적 트렌드
형식/장르	오케스트라 교향악	합창단 남성군대합창	빅밴드, 세미오케스트라 재즈, 경음악(세미클래식)		밴드음악 전자음악, 대중적 요소
목적	국가건설	위기극복	후계체제공식화	문명국건설	지도자 대표악단
모티브	소련 국립교향악단	붉은별합창단	폴모리아 오케스트라 (Paul Mauriat Orchestra), 글렌밀러 오케스트라 (Glenn Miller Orchestra)		본드(Bond), 걸 그룹 소녀시대 디스코 풍 전자악단 혼성 밴드, 솔로 여성가수

먼저 국가건설 초기 정체성 확립 과정과 위기 극복 및 대내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할 때 소련모델을 차용한 악단이 등장했다. 북한은 국가건설 초기 국립교향악단(당시 중앙교향악단)을 창립하여 국가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국립교향악단은 교향악단 형식을 통해 문화국가의 권위와 독자적 음악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고자 하였으며, 국가기반 확립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며 이를 통해 국가건설 초기 인민들의 국가건설 투쟁을 적극 고무시켰다. 또한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찾아온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위기극복 및 체제결속 강화 목적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을 창립하였다. 합창 형식은 공동체의 단결력이 바탕이 되며, 많은 인원을 대동하여 장엄함과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또한 군대소속 남성대편성합창이라는 형식은 특유의 위압감을 준다. 김정일은 이러한 합창의 효과를 견지하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민의 결집과 단결을 추동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시기 공훈국가합창단을 전면내세워 선군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김정일은 당시 어려운 환경과 정세에 적합한 음악형식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합창형식의 악단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악단들은 당시 소련 국립교향악단 설립과 같이 국가건설 시기 교향악단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알렉산드로프 앙상블(Ансамбль Александрова)과 같은 대규모남성군대 합창단으로 위기극복 전환이 필요한 시기 대중의 결집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후계체제 공식화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목적에서는 고전음악의 변용을 통해 새로운 악단을 창립하였다. 삼지연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은 고전적인 오케스트라의 형식에 경음악적 요소들로 대중적인 음악을 시도하면서 젊은 지도자를 상징하는 변화의 요소들을 활용하였다. 이에 이 악단들은 후계자 구축과정에서 후계자의 상징성을 대표하며 현대화된

새로운 악단의 모습으로 창립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삼지연관현악단은 해방 직후 국가건설 당시 가장먼저 교향악단을 창립하여 문화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문명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북한에서는 대중에게 고전음악을 외면당했던 경험이 있다. 이에 대중들의 취향을 기본으로 하는 음악을 만들고자 하였고, 이에 민요를 바탕으로 기악음악을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후계체제와 문명국건설을 상징할 수 있는 클래식악단을 창립하는데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요소가 필요했다. 이에 재즈와 이지리스닝(easy listening) 계의 외국노래를 주요 레퍼토리로 구성하면서 형식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악단의 여러 형식은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는 악단에 인민들의 취향을 고려한 대중적 요소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지연관현악단의 경우 문명국가로서의 비전제시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국면전환의 기회로 활용해 대북제재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였다. 평창올림픽 계기 방남 공연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 행사이자 국제무대에서 북한악단의 첫 공연이었기에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는 필수적이었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첫 데뷔무대이자 국제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폐쇄적이라고 알려진 북한사회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을 통해 보편적인 음악들의 수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북한에 대한 대외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더불어 김정은의 개방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지도자 대표악단으로서 새로운 정권의 정체성 확립과 지도자 권력기반 마련 목적으로 창립된 김정일 시기 왕재산경음악단과 보천보전자악단, 김정은시기 모란봉전자악단과 청봉악단은 세계적 음악추세를 반영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중적인 악단을 통해 변화한 대중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도자의 권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식의 두 개 악단을 창립하여, 두 악단을 주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체제를 구성하도록 한 특징이 나타났다. 이 악단들은 연주형태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콘셉트나 음악형식에서 다른 개성을 나타내며 상호발전을 위한 경쟁구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악단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국가건설 시기와 위기극복시기 소련모델을 차용하며 악단을 창립했던 것은, 당시의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악단 창립 당시 국가건설 초기였던 만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국가 위기상황 또한 체제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때 독자적인 형식보다는 소련의 포맷을 참고하여 국가를 상징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합한 형식을 차용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후계자 구축과 문명국건설과 같은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는 기존의 고전적 음악형식에서 새 시대의 이미지를 반영해 경음악적 요소로 고전음악을 변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정일과 김정은은 정권창립에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악단을 창립하며 새로운 지도자의 시작을 알렸다. 이때 세계적 음악트렌드를 반영하여 대중적인 악단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악단과 문화정책의 변화를 악단 창립 목적과 악단의 형식 및 장르 특징과의 관련성을 통해 밝혀보고자 했다. 북한의 악단 창립에는 다양한 배경과 목적이 있었지만, 여기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북한 악단의 창립은 결국 정치적 목적인 체제유지로 귀결됨에도 국제정세와 대내 정치적 상

황 및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활용되었고, 이때 단순히 악단의 창립이 아닌 악단의 형식과 장르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이 논의에 의의가 있다. 북한 대표악단들의 형식과 장르의 지속적인 변화는 북한이 시대의 변화흐름에 조응하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북한 악단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원구. 『음악의 역사』.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6.
박선민, 『대중가요 리메이크와 복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삼호뮤직편집부.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2001.
와다 하루끼. 『북한현대사』. 과주: 창비, 2014.
セルジュ・エライク. 山崎俊明 譯, 『ポール・モーリア』. 東京: 南部全司, 2008.

2. 논문

-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창립과 핵심인재양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18권 1호, 2014.
이충상. “한국 인기 대중음악의 시대별 특성 분석: 1960년대~2000년대 인기 가요 및 가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조윤영. “왜 식민지조선 음악가들은 관현악단을 만들고자 했는가: 경성방송(JODK) 관현악단의 출현과 그 의의.” 『이화음악논집』. 21권 2호, 2017.

3. 북한자료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7월 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로동신문』. 2012년 4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시대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해나갈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 청봉악단이 조직되였다.” 『로동신문』. 2015년 7월 28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년 10월 1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측지역에서 축하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돌아온 삼지연관현악단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 2018년 2월 13일.
“국립 극장들이 걸어 온 길을 더듬어: 국립 교향악단.” 『조선음악』. 10호, 1965.
“다채로운 예술공연 진행.” 『로동신문』. 1989년 6월 30일.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문화예술전당: 당의 은정속에 우리 나라 극장의 본보기로 새롭게 개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개관식 진행.” 『로동신문』. 2018년 10월 11일.

“세계적인 공훈합창단.” 『조선예술』. 12호, 2001.

“신년사.”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주체예술의 화원을 꽃피워온 예술집단 만수대예술단조직 40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2009년 9월 2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을 높이 평가해 주시었다.” 『조선문학예술년감(2001)』.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창작공연활동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조선문학예술년감(2001)』.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일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로동신문』. 2011년 12월 20일.

“조선식전자음악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조선예술』. 8호, 2004.

“주체음악예술의 새로운 발전면모를 보여준 인상깊은 공연무대: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공연을 보고.” 『로동신문』. 2009년 5월 17일.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창조기풍.” 『로동신문』. 2013년 1월 15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2판)』.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김일성. “예술단체들을 조직할데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장과 한 담화(1945년 10월 22일).” 『김일성전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일성. “음악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중앙교향악단창립공연을 보고 예술인들앞에서 한 연설(1946년 8월 8일).” 『김일성저작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음악예술부문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1990년 12월 8일).” 『김정일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음악년감 1986』.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8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음악년감 1990』.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오룡성,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한 조선로동당”,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 62권 4호, 2016.

정태봉.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을 선군정치의 나팔수로 키워 주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48권 1호, 2002.

4. 기타자료

박용구. “교향악운동의 기본형태.” 『조선일보』. 1946년 1월 28일.

송명남. “<모란봉악단>을 통해 보는 조선의 문화정책과 인민생활.” 『朝鮮大學校學報』. 25권, 2015.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악보바다』 <<http://www.akbobada.com>>

『알렉산드로프 앙상블(Ансамбль Александрова)』 <<http://alexandrov-fond.ru/ensemble/>>